

經濟成長과 經濟力集中

司空 壹

▷ 目 次 ◁

- I. 序 論
- II. 韓國의 財閥과 日本의 「자이바쯔」(財閥)
- III. 經濟力集中에 관한 推計
- IV. 經濟力集中 要因의 檢討
- V. 經濟力集中의 評價와 앞으로의 政策方向

I. 序 論

經濟成長(economic growth)은 總量的으로 企業成長의 結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總量的 企業成長 내지 經濟成長過程에서 일부 企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1) 여기서 經濟力이란 經濟的 資源 내지 富를 所有 혹은 支配함으로써 他經濟單位의 行爲에 영향력을 行使할 수 있는 能力을 뜻함.
- 2) Bain (1959) pp.88~90, Williamson (1975) pp.155~175, 및 Steiner (1977) pp.288~317 參照.
- 3) 本論文에서는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은 “企業集中”으로 通用하고 있음.
- 4) 明治維新 以來 開發途上에 있던 日本의 企業集中現象인 「자이바쯔」와 오늘의 印度, 파키스탄 및 中南美 諸國의 企業集中現象은 많은 學者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어 왔다. 日本의 「자이바쯔」에 관한 것으로 Bain (1966),

業은 餘他企業에 비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成長하여 상대적인 大企業化 내지 大企業群化하게 되며 따라서 經濟力¹⁾의 集中(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現象을 招來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經濟力集中은 特定産業 혹은 特定商品市場에 있어서의 經濟力集中과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の 集中이란 두가지 相異한 側面에서 論議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측면은 産業別集中(industrial concentration) 혹은 市場集中(market concentration) 등으로 表現되며, 이른바 産業組織論(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의 主 關心事가 되고 있다. 反面에 巨視的 集中(macro-concentration) 혹은 經濟全般에 걸친 企業支配의 集中 등으로 表現되는 둘째 側面은 經濟力集中에 의한 競爭有效性의 減少란 市場構造의 次元에서뿐만 아니라, 社會·政治的 次元에서 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다²⁾.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 혹은 企業集中 現象³⁾은 특히 많은 후진국의 경우 더욱 큰 社會的인 關心과 分析의 對象이 되고 있다⁴⁾.

本 研究論文의 主關心事는 한국경제 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 혹은 企業集中 現況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主要因 및 問題點等を 分析 論議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 둔다.

II. 韓國의 財閥과 日本의 「자이바쯔」(財閥)

지난 20餘年間 持續된 高度成長 爲主의 開發戰略과 對外指向의 産業化政策에 힘입어, 그동안 韓國經濟는 刮目할 만한 成長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成長過程에서 一部 企業은 大企業化 내지 “財閥”化하여 다음 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韓國經濟의 企業集中深化 現象이 招來되었다. 本節에서는 우리나라 企業集中의 구체적인 形態인 財閥의 成長過程을 이와 類似한 점이 많은 日本 「자이바쯔」(財閥)의 變遷過程에 비추어 論議하기로 한다.

日本 「자이바쯔」의 發展段階는 Hirschmeier-Yui와 같이 크게 3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

다⁵⁾. 즉, 明治維新에서 中日戰爭(1868~1895)까지의 第1段階, 1896년부터 第2次世界大戰後 聯合軍의 日本 經濟力分散政策의 一環으로써 취해진 「자이바쯔」解體에 이르는 第2段階, 그리고 1947年以後 오늘에 이르는 第3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第1段階의 「자이바쯔」는 持株會社(holding company)와 같은 法人組織을 통한 일정한 支配패턴 없이 一個人의 統率力에 의하여 「자이바쯔」가 支配되고 그 自身과 家族을 중심으로 系列企業이 운영되었었다⁶⁾. 그러나 이러한 初期 「자이바쯔」는 점차 成長함에 따라 系列企業間의 調整 내지 效率的인 支配의 問題, 成長한 大企業의 組織 및 經營에 관한 專門的인 問題等に 直面하게 되었다. 따라서 第2期の 財閥은 能力과 忠誠心을 基準으로 選定된 주로 名門大學 出身의 非家族 專門經營人에게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持株會社를 통하여 系列企業의 所有와 統制를 效率化하기에 이르렀다⁷⁾. 이러한 「자이바쯔」의 再組織은 1910~1920년에 거의 이룩되었었다.

第3段階는 第2次世界大戰 以後 解體된 「자이바쯔」企業들을 中心으로 再登揚하게 된 企業群인 「게이레쯔」(系列)形態로 現存하는 狀態이다⁸⁾. 第2次世界大戰이 終結되기 以前の 日本産業은 「자이바쯔」의 主導下에서 成長하여 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인데, 戰後 日本經濟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戰前 「자이바쯔」와 같은 名稱으로 主要企業群이 再登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게이레쯔」는 戰前의 「자이바쯔」形態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一個 혹은 數個의 市中銀行을 중심으로 뭉쳐진 獨自的 企業들로서 이들 會社의 社長들의 非公式的인 모임을 통하여 企

Bieda(1970), Caves and Uekusa(1976), Hirschmeier and Yui (1975), Yamamura(1964) 및 Yanaga(1968) 등이 있고 印度의 Industrial Houses에 관해서는 Chaudhuri(1975) 및 Ghosh(1974) 등을 들 수 있으며 파키스탄의 Industrial Families에 관한 것으로 Papanek(1976)과 中南美諸國의 企業集中에 관한 Strachan(1976) 등을 들 수 있다.

5) Hirschmeier and Yui(1975) 參照.

6) 初期 「자이바쯔」는 徒弟(apprentice)로서 成長하면서, 同 「자이바쯔」 家門의 傳統과 精神을 잘 習得한 者 혹은 「반도」(番頭)를 經營人으로서 고용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7) 各會社의 社長자리는 家族 構成員이 차지하고, 實權은 選定된 專務 또는 能力과 忠誠心을 겸비한 餘他最高經營人이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이는 事實上 所有와 經營의 分離로 볼 수 있겠다. Hirschmeier and Yui(1968), p.166 參照.

8) 「게이레쯔」에 관한 論議는 Bieda(1970), pp.210~221 參照.

業政策의 調整과 때로는 共同步調를 期하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⁹⁾. 따라서 이들을 「자이바쯔」라고 부르는 것조차 不適하다고 주장하는 學者들도 있는 것이다¹⁰⁾.

以上에서 日本 「자이바쯔」의 發展 내지 變遷過程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자이바쯔」라고 하면 第2段階의 「자이바쯔」를 聯想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자이바쯔」를 “持株會社를 통한 高度의 中央集權的 家族支配의 組織”¹¹⁾이라고 定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의 韓國財閥은 그 組織上 日本의 第1段階 「자이바쯔」와 恰似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韓國財閥의 대부분은 이들 財閥을 일으킨 企業家 本人 및 그의 家族 爲主로 統制·運營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財閥創設者들은 日本 明治時代에 出現한 「자이바쯔」創設者들과 마찬가지로 企業成長에 有利한 政府의 諸般 經濟施策 특히 大企業에 有利한 產業政策¹²⁾과 自身들의 뛰어난 企業家的 能力的 結合으로 餘他 企業人들보다 先頭走者가 된 者들이다.

9) Hirschmeier and Yui(1975) p.214. 參照.

10) Yamamura(1964) 參照.

11) Yanaga(1968), p.38 參照.

12) 日本의 경우 政府의 特惠를 享有하던 商人들을 「세이쇼」(政商)라고 부르는데 이들 「세이쇼」의 대부분은 나중에 「자이바쯔」를 創設하게 되었다. 특히 政府의 擁애를 많이 받던 「세이쇼」는 政府의 「모빌」企業 拂下時에 엄청난 혜택과 各種의 補助로 더욱 大成하게 되었다. 「미쓰이」(三井)와 「미쓰비시」(三菱)는 이들의 대표적인 例이다. Hirschmeier and Yui(1968), pp.96~99. 參照.

13) 初期 日本 「자이바쯔」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大量의 資金을 손쉽게 確保하기 위하여 自身들의 銀行을 創設 혹은 既存銀行을 引受하였다. 例를 들면 「미쓰이」(三井)는 1876년에 「야스다」(安田)는 1880年, 「미쓰비시」(三菱)는 1895年, 「스미도모」(住友)는 1895년에 各各 銀行을 創設 혹은 引受했다. Hirschmeier and Yui(1968), pp.103~105 參照.

14) 最近에 와서 金融構造 改編과 關聯하여 市中銀行의 民營化가 論議되고 있는데, 財閥에 의한 이들 銀行의 引受는 經濟力集中이란 側面에서 볼 때 所望스럽지 못한 것은 再言의 餘지가 없다. 따라서 적절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市中銀行의 民營化가 經濟力의 集中을 더욱 深化하지 않도록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들 財閥 創設者들의 대부분은 아직 生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上記한 바와 같이 오늘날 韓國財閥의 대부분이 財閥創設者 및 그의 家族을 중심으로 統制되고 있다는 점에서 初期段階의 日本 「자이바쯔」와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一部 財閥은 持株會社 形式의 運營方式을 점차 踏襲하고 있을 뿐 아니라 信賴할 수 있는 專門經營人에게 의존해 가는 過渡期的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韓國 財閥의 現位置는 日本 「자이바쯔」의 初期와 第2期の 過渡期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間에는 중요한 差異點도 있다. 즉, 日本 「자이바쯔」의 대부분은 自身の 銀行을 所有하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財閥은 정부가 支配하고 있는 事實상의 公企業인 市中銀行에 의존하고 있다는 點이다¹³⁾. 이는 銀行 所有 如何가 經濟力集中을 더욱 深化할 것임은 물론이며 經濟力集中의 質的 強度를 더욱 높여 준다는 點에서 중요한 差異點이 아닐 수 없다¹⁴⁾. 過去 日本의 경우 「자이바쯔」成長에 가장 큰 役割을 한 것은 「자이바쯔」 自身들의 銀行이었으며, 印度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Ⅲ. 經濟力集中에 관한 推計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本論文에서의 經濟力集中은 經濟全般에 걸친 企業集中이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韓國의 主要企業群 내지 財閥이 經濟全般에서 차지하는 比重과 그 現況을 살펴 보기로 한다.

財閥의 규모는 總資本金, 雇傭人員, 賣出額

〈表 1〉 財閥部門의 附加價值

(단위: 經常10億원)

財閥數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5	169.25(3.5)	258.48(3.8)	425.27(4.7)	599.88(5.1)	1,253.80(8.2)	1,656.73(8.1)
10	246.39(5.1)	385.36(5.6)	637.97(7.1)	850.57(7.2)	1,609.17(10.6)	2,222.89(10.9)
20	344.93(7.1)	537.24(7.8)	881.11(9.8)	1,114.81(9.4)	2,028.89(13.3)	2,862.68(14.0)
46	476.65(9.8)	709.04(10.3)	1,111.09(12.3)	1,458.13(12.3)	2,485.42(16.3)	3,492.72(17.1)
(韓國公企業部)	417.30(8.6)	537.56(7.8)	737.52(8.2)	1,014.58(8.5)	1,191.06(7.8)	—

註:〈表 2〉의 註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資料關係로 財閥部門 附加價值推計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企業이 있어, 各年度推計 附加價值는 實際附加價值總額보다 約 5% 程度 낮은 것으로 볼수 있겠음.
()안은 GDP에 대한 比率.

資料: 韓國銀行, 『1978年 國民總生產實績推計』, 1979.
各會社의 財務諸表 및 기타 資料.

등 여러 측면에서 類推될 수 있으나 本論文에서는 GDP와 比較될 수 있는 主要財閥의 總附加價值를 중심으로 經濟力의 集中現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쓰여진 各 個別企業의 附加價值(VA)는 아래의 방법으로 間接推計된 것이다.

$$VA = \pi + \alpha(X - \pi)$$

여기서 π 는 實際純利益, X 는 總賣出額, 그리고 α 는 產業聯關表(input-output table)에서 얻은 該當產業部門 係數임¹⁵⁾.

上記 式의 특징은 利益金 以外の 附加價值는 產業聯關表에 따라 間接推計된 것임에 反해서, 各 個別企業의 利益金만은 實際值를 사용하여 間接推計의 誤差를 最少化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上記 方法에 의하여 推定된 附加價值總額은 하나의 近似值로서 看做되어야 할 것임을 미리 強調해 둔다.

〈表 1〉은 上記한 方法에 따라 推計된 1973~78年의 主要財閥 附加價值 總額과 이의 GDP에 대한 比率를 보여준다. GDP에 대한

主要財閥 總附加價值 比率는 1973年 以來 계속 上昇되어 왔음을 〈表 1〉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 혹은 企業集中의 深化趨勢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大財閥의 附加價值總額이 GDP 중에서 차지하는 比率는 1973년에 約 5%에 不過하던 것이 1978년에는 2배가 넘는 約 11%로 늘어났으며, 韓國 公企業部門 全體附加價值가 GDP에서 차지하는 比率를 훨씬 凌駕하고 있다¹⁶⁾.

〈表 3〉은 〈表 1〉의 結果를 招來하게 된

〈表 2〉 主要 財閥傘下 企業體數

財閥數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5	43	51	54	68	91	111
10	80	98	104	127	150	165
20	152	187	199	209	242	284
46	290	315	329	335	393	421

註:〈表 1〉의 推計에 포함된 企業만 포함됨. 財閥소속 企業으로 確認은 되었으나 資料의 入手가 어려워 포함되지 않은 企業의 數는 1978年의 경우 157個에 달하나, 이 中에는 文化·教育等に 종사하거나, 建設中 혹은 休業中인 約 40餘個社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會社들은 大部分 그 規模가 작은 會社들로서 이들의 資本金總額을 기준으로 볼때 46個財閥總附加價值의 約 5% 内外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財閥部門의 附加價值에 큰 變動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될 것임.

資料: 〈表 1〉과 같음.

15) 個別會社의 賣出額과 利益金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 企業과 個別의인 접촉을 통하여 얻는 것임.

16) 司空 壹(1979) 參照.

GDP와 財閥 總附加價値의 年平均成長率間의 큰 乖離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表 3>에서

<表 3> 財閥의 總附加價値 成長率

(단위: 10億원, 1975年價格)

財閥數	1973	1978	年平均成長率 ¹⁾ (%)
5	269.85	1,006.64	30.1
10	392.84	1,350.64	28.0
20	549.95	1,739.39	25.9
46	759.96	2,122.20	22.8
GDP	7,729.21	12,400.62	9.9

註: 1) 年平均成長率은 복리로 計算됨.

資料: <表 1>과 같음.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10大財閥의 경우 28%, 20大財閥의 경우 26%, 그리고 46個 財閥을 모두 포함한 경우 23%의 年平均 附加價値 成長率을 各各 示顯하고 있는 것이다¹⁷⁾.

財閥의 經濟力集中 現象은 <表 4>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6大財閥 傘下 421個 業體중 製造業部門에 속하는 272個 業體의 附加價値總額은 韓國經濟 全體 製造業 부문 GDP의 43%에 달하고 있다¹⁸⁾.

<表 4> 製造業部門 附加價値

(단위: 經常10億원)

財閥數	1973	1975	1978
5	97.88(8.8)	261.67(12.6)	895.47(18.4)
10	154.49(13.9)	391.12(18.9)	1,140.50(23.4)
20	241.96(21.8)	599.94(28.9)	1,618.76(33.2)
46	353.58(31.8)	757.32(36.5)	2,092.65(43.0)

註: (·)안은 GDP에 대한 比率.

資料: <表 1>과 같음.

17) 大企業의 경우 相對的으로 小企業보다 成長可能性이 높다는 事實은 中小企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N 節 表 9 參照).

18) 1977年 現在 全體 製造業體數는 26,726個로서, 1977年 46大財閥傘下 252個 業體는 全製造業體數의 0.9%에 不週하였다. 1978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比率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表 5>에서 非農林漁業部門의 GDP에서 同部門 소속 46大財閥企業의 總附加價値가 차지하는 比率는 23%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表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財閥 傘下 製造業體들이 製造業 全體에 비해 더욱 빨리 成長해 온 결과이다. <表 6>에서도 <表 3>에서와 같이 大財閥의 製造業體일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財閥의 製造業體보다 成長率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發見할 수 있다.

<表 5> 非農林漁業部門 附加價値比率¹⁾

(단위: %)

財閥數	1973	1975	1978
5	4.8	6.4	10.7
10	7.3	9.7	14.4
20	10.0	13.3	18.5
46	13.8	16.9	22.6

註: 1) 財閥部門의 非農林漁業部門 附加價値의 同部門 GDP에 대한 比率임.

資料: <表 1>과 같음.

<表 6> 製造業 附加價値成長率

(단위: 10億원, 1975年價格)

財閥數	1973	1978	年平均成長率 ¹⁾ (%)
5	140.25	645.71	35.7
10	221.36	822.40	30.0
20	346.70	1,167.26	27.5
46	506.63	1,508.98	24.4
GDP	1,590.64	3,511.09	17.2

註: 1) 年平均成長率은 복리로 計算됨.

資料: <表 1>과 같음.

끝으로 이들 財閥 산하 企業의 附加價値總額 基準 產業別 分布와 各產業別 財閥 附加價値總額이 產業別 GDP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表 7>과 <表 8>에서 各各 찾아볼 수 있다. <表 7>에서는 1978年 現在 財閥 傘下 企業 附加價値의 대부분은 製造業과 建設業部門에 集中

〈表 7〉 財閥의 産業別 附加價值構成比 (1978年)

(단위: %)

産業	財閥數	5	10	20	46
1. 農 · 林 · 漁 業		.14	.10	.14	.12
2. 鑛 · 採 石 業		.88	.66	.62	.51
3. 製 造 業		54.05	51.31	56.55	59.91
4. 建 設 業		17.54	24.73	20.77	19.85
5. 電氣 · 水道 · 衛生業		.11	.08	.07	.05
6. 運輸 · 保管 · 通信業		9.90	9.24	7.92	6.69
7. 都 · 小 賣 業		4.11	3.26	4.58	4.05
8. 金 融 · 保 險 業		9.53	7.52	6.45	6.34
9. 서 비 스 業		3.74	3.10	2.90	2.48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 〈表 1〉과 같음.

〈表 8〉 産業別 附加價值 및 GDP에 대한 比率 (1978年)

(단위: 經常10億원)

産業	財閥數	5	10	20	46
1. 農 · 林 · 漁 業		2.29(.05)	2.29(.05)	4.08(.08)	4.08(.08)
2. 鑛 · 採 石 業		14.63(4.56)	14.63(4.56)	17.77(5.54)	17.77(5.54)
3. 製 造 業		895.47(18.39)	1,140.50(23.42)	1,618.76(33.24)	2,092.65(42.98)
4. 建 設 業		290.63(15.51)	549.81(29.35)	594.43(31.73)	693.30(37.01)
5. 電氣 · 水道 · 衛生業		1.88(.64)	1.88(.64)	1.88(.64)	1.88(.64)
6. 運輸 · 保管 · 通信業		163.97(12.57)	205.35(15.75)	226.72(17.39)	233.70(17.92)
7. 都 · 小 賣 業		68.02(2.22)	72.37(2.37)	131.19(4.29)	141.51(4.63)
8. 金 融 · 保 險 業		157.91(22.96)	167.10(24.30)	184.76(26.87)	221.26(32.17)
9. 其 他		61.94(2.06)	68.98(2.29)	83.10(2.76)	86.57(2.87)

註: ()안은 GDP에 대한 比率.

資料: 〈表 1〉과 같음.

되어 있으나, 農 · 林 · 漁業部門에서 서비스業에 이르기까지 財閥이 干與하고 있지 않는 部門은 없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表 8〉에서 볼 수 있는 것은 製造業, 金融 · 保險業 및 建設業의 경우 財閥附加價值 總額이 當該産業 GDP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엄청나게 높아 同産業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은 더욱 深化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以上에서 韓國經濟 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度와 그 深化現況을 附加價值 側面에서 推計하여 보았는데, 다음 節에서는 財閥의 急成長

을 통한 經濟力集中을 招來하게 되는 主要因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IV. 經濟力集中 要因의 檢討

前節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의 主要 財閥은 그동안 急成長하여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의 深化를 促進시켜 왔다. 本節에서는 이들 財閥의 成長을 促進시킨 要因을 간단히 검토

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財閥 成長의 要因 分析은 1960年 以前 低成長期와 1960年 以後 持續된 高度成長期를 구분하고, 企業活動도 Leibenstein¹⁹⁾과 같이 正合企業活動(positive-sum entrepreneurial activity)과 零合企業活動(zero-sum entrepreneurial activity)의 觀點에서 論議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먼저 企業活動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자. 傳統的인 微視經濟學(micro-economics)에서는 모든 自發的인 去來 및 生産活動은 同活動에 參與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相互利益(혹은 적어도 無損失)을 享有하는 正合活動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企業活動은 일단 正合活動으로 看做하는 것이다. 그러나 Leibenstein은 個人的 富는 直間接的으로 增加될지 모르나 經濟 全般의 生産能力에는 寄與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企業活動은 零合企業活動으로 看做할 수 있다고 본다. 즉,

- 1) 獨占의 地位의 強化 혹은 政治勢力의 增大를 위한 非交易活動(non-trading activities),
- 2) 獨占의 地位의 強化 내지 단순한 富의 保全 手段만으로써 행하는 交易活動(trading activities),
- 3) 企業家の 才能과 富를 投機的 去來에 活用하는 경우와
- 4) 企業家の 生産活動일지라도 그 社會的 價値(social value)가 零이거나 私的 價値(private value)보다 훨씬 낮은 경우 등은

19) Leibenstein(1957), pp.111~119 參照.

20) K.D. Kim(1976) 및 J.W. Kim(1975) 參照. 印度 등 後進國 企業그룹의 성장에 관하여서 이와 類似한 主張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Chaudhuri(1975) 參照.

21) 金融上의 特惠 以外에도 關稅를 포함한 각종 稅制上의 혜택 등이 있으나 國內外 金融에 따른 特惠를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간주함.

零合企業活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1950年代의 많은 企業活動은 零合活動으로 看做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1950年代의 成功的 大企業의 成長 내지 財閥形成要因은 주로 政治的 紐帶를 통한

- 1) 輸入割當 및 輸入許可의 非競爭의 取得
- 2) 日帝 歸屬財産의 非競爭的 廉價取得
- 3) 援助資金 및 物資의 非競爭的 取得
- 4) 政府와의 非競爭的 契約締結
- 5) 特惠的 低利融資의 獲得 등은

零合類의 交易 및 非交易活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²⁰⁾. 따라서 成功的 大企業의 出現 및 일부 財閥形成이 1950年代에도 이룩되었을 뿐 아니라 個人的으로 致富한 企業人은 많았으나 經濟全體는 低成長을 면치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高度成長期인 1960年 以後의 財閥成長의 主要因은 무엇인가? 위의 다섯가지 要因中 처음의 4가지 要因은 어느 정도 除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特惠的 低利融資 및 각종 國內外 金融의 惠擇은 財閥成長의 主要因으로 남아 있다²¹⁾.

그렇다면 1960年 以後 韓國經濟는 어떻게 財閥의 急成長뿐 아니라 高度成長을 同時에 持續할 수 있었을까? 一般的으로 말해서 1950年代에는 政治的 背景 혹은 紐帶가 위의 각종 特惠市場接近에 필요한 必要·充分條件이었다면 1960年 以後에 와서는 단지 어느 정도의 必要條件일 뿐 充分條件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經濟成長에 全力을 경주하는 政治的 指導力(political leadership commitment to economic growth)下에서는 取得된 特惠的 金融資源이 좀더 생산적인 正

합企業活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보장없이 無條件 特惠市場에의 접근이 이룩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²²⁾. 따라서 正合企業活動도 促進되었고, 經濟成長도 이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에서 經濟力의 集中이 더욱 深化되어 온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이미 經濟力이 相對的으로 강할 뿐 아니라 이미 성공적 企業活動의 업적이 있는 大企業 내지 大財閥의 特惠市場 접근은 누구보다 더욱 容易할 것이기 때문이고, 강력한 經濟力은 곧 政治的 影響力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對的으로 大財閥은 小財閥에 비해 大企業은 小企業에 비해 成長速度는 促進되고 經濟力의 深化는 加速化되는 것이다.

〈表 9〉 企業規模別 成長可能性向
(1966~69)

企業規模 (1966年)	上位規模로의 流出率 (%) (1)	下位規模로의 流出率 (%) (2)	成長可能係數 (3)=(1)/(2)
5~ 9人	15.4	—	—
10~ 19人	19.2	40.8	.47
20~ 29人	28.4	42.8	.66
30~ 49人	28.3	38.0	.74
50~ 74人	27.6	40.7	.68
75~ 99人	42.8	35.8	1.20
100~149人	47.0	27.2	1.72
150~199人	53.2	31.7	1.68
200~299人	46.9	27.2	1.72
300人 以上	—	15.2	—

資料：李敬儀(1977), p. 486 參照.

〈表 10〉 製造業體數 및 規模

年度	業 體 數	雇 傭 人 數	實質附加價值 ¹⁾	雇傭人數 / 實質附加價值	
				業體數	業體數
1961	16,028	296,585	138,686	18.5	8.7
1962	16,355	304,565	186,507	18.6	11.4
1963	18,310	401,981	272,274	22.0	14.9
1964	—	—	—	—	—
1965	18,396	453,422	300,797	24.7	16.4
1966	22,718	566,665	412,884	25.0	18.2
1967	23,833	648,811	527,412	27.2	22.1
1968	24,102	748,184	717,015	31.1	29.7
1969	25,098	828,966	931,417	33.0	37.1
1970	24,114	861,041	1,117,693	35.7	46.4
1971	23,412	848,194	1,345,285	36.2	57.5
1972	23,729	973,415	1,543,783	41.0	65.1
1973	23,293	1,157,829	1,917,740	49.7	82.3
1974	22,632	1,298,384	2,249,340	57.4	99.4
1975	22,787	1,420,144	2,828,149	62.3	124.1
1976	24,957	1,717,308	3,535,227	68.8	141.7
1977	26,726	1,918,931	4,426,732	71.8	165.6

註：1) 實質附加價值는 100萬원(1975年價格)임.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韓國銀行, 『1978年 國民總生產實績推計』, 1979.

各會社의 財務諸表 및 其他資料.

22) 이는 어디까지나 一般的인 傾向일 뿐, 많은 例外가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한 特惠的 融資나 海外借款에 의한 不動產 投機와 같은 零合類의 企業活動의 例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大財閥이 小財閥에 비해 成長이 더욱 빠르
다는 사실은 앞의 <表 3>을 통하여 보았다.
이러한 趨勢는 中小企業間에도 나타나고 있음
을 <表 9>에서 볼 수 있다. 즉, 中小企業의
경우에도 어떠한 理由이든간에 相對的으로 大
企業일수록 더욱 大企業化 可能性이 높아진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現在의 諸般條件下에서는
既存 大企業의 擴張에 비하여 새로운 企業家
에 의한 새로운 企業의 設立이 相對的으로 어
렵다는 점을 間接的으로 말해 준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一般的으로 投資의 成功率을 높이고
(혹은 危險負擔을 줄이고) 規模의 經濟 利點
을 살리려는 政策的인 고려에서 緣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表 10>은 우리나라 製
造業體數와 그 規模를 보여주고 있는데, 同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同表에 의하면 1977년의 製
造業體數는 1961년에 비해 1.7배에 불과한데
反해, 製造業體의 平均規模는 事業體當 從業
員數로 볼 때 3.9배, 事業體當 實質附加價値
로 볼 때 19.0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1961年
부터 1977年間의 製造業部門 實質附加價値總
額 增加의 98%는 平均規模의 增加에 基因하
며 나머지 2%만이 事業體數의 增加에 基因되
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23) 既存企業의 확장이 새로운 企業에 의한 新企業의
設立보다 훨씬 容易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Jones-
SaKong(1980), Chapter 7 參照. 이러한 경향은 과거
日本, 印度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Hirschmei-
er and Yui(1968) 및 Chaudhuri(1975) 參照.

24) 이는 同期間中 增加된 事業體의 平均規模가 1961年
平均規模와 同一하다고 볼 때 이들 새로 增加된 事業
體의 實質附加價値總額은 全體製造業部門 實質附加價
値 總額增加의 約 2%에 해당한다는 것임.

25) Jones and SaKong(1980), Chapter 7 參照.

26) <表 11>은 非法人業體도 포함하고 있는 <表 10>과는
다르다. 年間進入에 관한 時系列資料는 1970年代에 와
中斷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런데 平均企業規模의 增加 또한 既存企業
의 擴張과 新舊企業의 代替 즉, 小規模企業의
離脫(exit)과 大規模企業의 進入(entry)의 결
과로 볼 수 있는데, Jones-SaKong에 의하면
製造業의 경우 平均企業規模의 增加는 거의가
既存企業의 擴張에 基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끝으로 事業體數의 낮은 純增에 비해 總進
入率은 어느 정도였나를 살펴보자. <表 11>은
株式會社 및 其他 法人의 進入과 離脫에 관한
資料이다²⁶⁾. 上記 表에 의하면 1967년부터 19
69년까지 3年間 總進入 法人業體數는 2,121個

<表 11> 製造業 法人企業의 進入 및 離脫狀況

年 度	年末現在業 體數 ¹⁾	年間進入業 體數 ²⁾	年間離脫業 體數 ³⁾
1960	2,149	210	
1961		249	
1962		389	
1963	2,226	259	
1964		312	
1965		398	
1966	2,367	622	
1967	2,285	683	765
1968	2,310	670	645
1969	2,421	768	657
1970	2,542		
1971	2,592		
1972	3,083		
1973	3,220		
1974	3,774		
1975	4,490		
1976	5,059		
1977	5,773		

註: 1) 經濟企劃院, 『鑛工業서베이』(各年度)의 製造業體
의 株式會社 및 기타 法人의 數.

2)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1965~1970)의 10個大
都市와 22個小都市 新設法人企業體中 製造業體數.

3) 年末業體와 年間進入業體數의 比較에서 밝혀진
殘餘分임.

資料: 商工部·韓國産業銀行,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查
綜合報告書』, 1960.

經濟企劃院, 『鑛工業서베이』, 各年度.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5~1970.

였으며, 同期間中 總離脫業體數는 2,067個로서 年間 總進入은 總業體의 約 3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離脫業體를 살펴보면 設立年數가 짧고 企業의 規模가 相對的으로 적을수록 離脫率 즉, 倒産率이 높다는 것이다. Jones-SaKong에 의하면 調查對象企業의 約 1/3이 設立된 지 2~3年 以內에 倒産되었을 뿐 아니라 이 倒産企業의 規模는 調查對象企業 平均 規模의 1/6에 不過하였다²⁷⁾. 이러한 資料는 新設되는 中小企業의 隘路를 잘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V. 經濟力集中의 評價와 앞으로의 政策方向

Bain에 의하면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 혹은 企業集中은 보통 다음의 두가지 一般的인 근거에서 所望스럽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첫째, 이는 民主主義(democracy)의 原則적인 理想으로 볼 수 있는 상태 즉, 經濟力이 國民 대부분에게 골고루 擴散되어 있는 상태와 矛盾되며, 둘째 經濟力의 集中은 競爭의 有效性을 節減하게 된다는 근거에서 所望스럽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의 集中과 各

市場에 있어서의 競爭 有效性의 關係를 생각해 보자. Bain이 지적하듯이 이들의 關係는 간단히 糾明하기 힘들다 1964年 美國 上院의 獨寡占에 관한 한 小委員會서 Walter Adams 教授가 證言한 바와 같이 큰 複合企業(conglomerate)²⁹⁾은 마치 百萬長者인 포커(poker)꾼 처럼 막대한 經濟력으로 各市場에서 競爭者를 無力하게 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따라서 이러한 問題는 앞으로 制定되어야 할 公正去來 및 獨寡占防止法 등에 反映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經濟全般에 걸친 經濟力集中의 社會·政治的인 側面을 간단히 생각해 보자. 經濟力集中의 深化는 上記한 經濟的 次元을 떠나서 社會·政治的 不滿을 造成할 뿐 아니라 政府의 經濟政策 調整의 合理性마저 沮害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現在까지의 諸般 政策은 企業集中을 오히려 助長하여 왔을까? 이는 한마디로 高度成長 爲主 開發戰略과 對外指向的 産業化政策의 持續過程에서 緣由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즉, 經濟力集中의 副作用에도 불구하고, 輸出增進을 통한 高度成長을 達成하기 위해 政府가 장악하고 있는 國內外 金融等 特惠市場에의 접근에 必要·充分條件³¹⁾을 具備한 大企業 내지 財閥에게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 왔다는 것이다.

反面에 經濟力集中의 質 내지 程度에 영향을 미치려는 政府의 政策은 어느 정도 강조되어 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0年代末頃 當時 一部 財閥이 장악하고 있던 市中銀行이 1960年代初에 사실상 公企業化되었고, 1970年代에 들어와 企業公開 促進을 통한 經營合理化 推進,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 및 企業資產의 合理的 運用을 目標로 취해진 이른

27) Jones and SaKong(1980), Chapter 7 參照.

28) Bain(1959), p.99 참조.

29) 이는 우리의 大財閥에 該當함.

30) 1964年 U.S. Senate Subcommittee on Anti-Trust and Monopoly에서 證言한 內容임. Chaudhuri(1975), p.64 參照.

31) 財閥들은 막대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國內外의 有能한 人材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過去의 成功的인 업적이 있기 때문에, 高度成長을 위한 正合企業活動의 失敗率을 最少化하려는 立場에서 보면 特惠市場 접근에 必要한 充分條件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바 1974年 5·29措置등 일련의 조치는 특히 財閥企業을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1974年 5·29措置 以後에 취해진 諸般 後續措置는 一部 財閥 산하 企業에 대해 貸出擔保 및 借款導入을 위한 新規 支給保證을 原則적으로 中止한다는 等 財閥成長 내지 企業集中 深化를 방지하려는 意圖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들 措置의 主目的은 財閥企業의 資産活用 내지 資産構成 (portfolio)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대한의 正合企業活動을 誘導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 上記한 諸措置가 財閥의 成長率(따라서 經濟力集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不動産投機등 零合企業活動에서 오는 私的 利潤이 代身 취하게 된 正合活動에서 오는 私的 利潤보다 적다거나, 또는 既存 資産의 構成을 바꾸는 데 諸費用(예를 들어서 土地나 株式의 賣却價格이 市場價額보다 낮게 策定됨에 따른 손실)이 따를 때 財閥의 成長에 負의 效果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反面에 企業公開에 따라 經營의 合理化 내지 效率化가 이룩된다면 이는 財閥成長에 正의 效果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財閥의 立場에서 보아 이들 措置에 따른 正·負效果를 어떻게 評價하느냐에 따라서 正 혹은 負의 誘因效果가 附加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現在까지의 推移를 살펴 볼 때 企業集中의 深化는 持續되고 있어, 이들 諸般措置의 負의 效果가 財閥部門 成長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前述한 바와 같이 經濟力集中의 深化가 經濟開發 初期段階에 불가피하였다고 일단 인정하더라도, 同趨勢가 持續된다면 멀지않아 社會·政治적으로 큰 問題로 浮刻될 것으로 豫見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趨勢를 緩和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金融構造의 改編을 통한 特惠金融市場의 除去와 公正去來 및 獨寡占規制를 위한 강력한 制度的인 裝置의 마련이 同時에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본다. 또한 企業家能力(entrepreneurship)의 供給이 늘어난 現時點에서 既存 大企業에게만 계속 依存하는 產業政策은 止揚되어야 하겠으며, 同時에 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적극적인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度.
商工部·韓國產業銀行,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 調查報告書』, 1960.
司空 壹, 「韓國公企業部門의 國民經濟的 役割」, 『韓國開發研究』, 1979年 여름호.
李敬儀, 「中小企業」, 『韓國經濟論』, 邊衡尹,

金潤煥 編, 1977.

韓國銀行, 『1978年 國民總生產實績推計』, 1978.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Bain, Joe S., *Industrial Org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59.

- Bain, Joe 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Industrial Structur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66.
- Bieda, K.,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Japanese Economy*, Sydney : John Wiley and Sons, 1970.
- Caves, Richard and Masu Uekusa, *Industrial Organization in Japan*, Washington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 Chaudhuri, Asim, *Private Economic Power in India*, New Delhi : People's Publishing House, 1975.
- Ghosh, Arabind, "Role of Large Industrial Houses in Indian Industries", *The Indian Economic Journal*, April-June, 1974.
- Hirschmeier, Johanne,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 Meiji Japa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Hirschmeier, Johanne, and Tsunehiko Yui, *The Development of Japanese Business 1600—1973*,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Jones, Leroy P., and Il SaKong,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Harvard Universit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0.
- Kim, Joungwon, *Divided Korea :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45—197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Kim, Kyong-Dong, "Political Factors in the Formation of the Entrepreneurial Elite in South Korea", *Asian Survey*, May 1976.
- Leibenstein, Harvey,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 Wiley and Sons, Inc., 1963.
- Papanek, Gustav, F. *Pakistan's Development: Social Goals and Private Incentiv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Steiner, Peter O., *Merger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 Strachan, Harry W., *Family and Other Business Group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Nicaragua*,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Inc., 1976.
-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5.
- Yamamura, Kozo, "Zaibatsu, Prewar and Zaibatsu, Postwar", *The Journal of Asian Affairs*, August, 1964.
- Yanaga, Chitoshi, *Big Business in Japanese 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68.